

근현대 불교학자 재조명 시작

한국불교학회, 12월 6일 첫 세미나 '고익진 학문세계'

근현대 불교학 발전을 위해 매진한 학자들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학회(학회장 김용표)는 12월 6일 오후 12시 30분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현대 한국불교학자의 삶과 학문 재조명 제1차 세미나 - 병고 고익진의 학문세계'를 개최한다.

고익진 선생 입적 25주기를 기해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그동안 한국불교학이 자리 잡기까지 노력해 온 근현대 불교학자들의 활동과 사상을 되짚는 첫 행사다.

첫 세미나 대상으로 선정된 병고 고익진 선생은 전남대 의대 재학 중 심내막염이 발병해 투병생활 중 광복사에서 불교를 접하고 불교학자의 길을 걷은 이다. 1969년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했다.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를 지내며 1981년 자신의 자택을 수행공간으로 개방하고 학생들과 수행공동체 일승보살회를 이뤄 이론과 실천이 함께하는 후학양성에 나섰다. 당시 학생으로 고익진 선생의 지도를 받은 이종표, 최봉수, 안성두 조은수, 이혜숙, 박경준, 우재선 교수 등은 현재 불교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고익진 선생은 초기불교에 대한 연구

를 시작해 한국불교학계에 니까야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불교 사상사를 천착했으며 한국불교전서 편찬실장으로서 <한국불교전서>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학계 '초기불교' 이론 제시한 선구자 자택 수행공간 구성, 일승보살회 창립 이론과 수행 함께 하는 교육법 펼쳐 <한국불교전서> 편찬 앞장, 88년 입적

이날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하는 정하경 일승보살회 회장은 "선생님은 자택을 학생들과 불교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열린 수행공간으로 제공해 불교학 저변을 넓혔다"며 "불교학이 튼튼하려면 먼저 아함경에 기초한 체계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당부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고 말했다.

첫 세미나에서 '고익진의 삶과 학문세계'를 주제로 기조강연하는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는 "고익진은 1970년대에 형성처

럼 등장해 초기불교 연구에 불길을 당긴 현대불교학의 선각자로, 한국불교 사상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지를 개척한 대표적인 불교학자로, 새로운 이념으로 결사를 펼친 이 시대의 실천적 불교운동가, 학문과 수행을 온전히 갖춘 스승이자 재가불자로서 여러 모습으로 남아있다"며 "대각국사 의천과 보조국사 지눌이 한국불교에 불멸의 빛을 밝힌 것처럼, 그의 삶이 또한 그러하였다"고 평가했다.

김용표 한국불교학회 학회장은 "현대 한국불교학 연구의 선각자들의 학문세계에

대한 탐색작업은 후학들이 해야 할 과제"라며 "향후 한국불교학자들의 학문세계를 살피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봉춘 명예교수의 기조강연과 함께 이종표 전남대 교수의 '초기불교와 아함경 연구', 김영일 동국대 외래교수의 '한국불교사상과 원효연구', 조은수 서울대 교수의 '한국불교전서 편찬과 과제'가 발표된다. (02)2260-3835

노덕현 기자 noduc@hyunbui.com

'반야학술상'에 이태승 교수·송재근 박사

제3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이태승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와 송재근 박사(창원대 철학과)가 선정됐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공동회장 박만연, 박문현)와 반야학술상운영위원회(위원장 지안)가 주관해 시상하는 반야학술상은 불교학의 발전과 동아시아 불교의 국제간, 학제간 연구를 주도할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격려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태승 교수는 <산타라쿠쉬타의 중관사상>을 출간해 저역상에, 송재근 박사는 학술지 <동아시아불교문화>에 실린 논문



이태승 교수



송재근 박사

'친란(親鸞) 정토교(淨土教)에 있어서 계율(戒律)의 문제'로 논문상에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5일 오후 12시 김해 바라밀 선원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불교紙花 보존·지원에 한 목소리

영산재와 수륙제 등 각종 불교의례에 사용돼 온 불교 장엄지화의 전승에 불교계 관심을 호소하는 학술세미나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연동회보존위원회, 불교지화장엄전승회는 1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지화장엄의 세계와 전승현황'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지화를 비롯한 불교민속문화 관련 학자와 스님, 장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양종승 무속 박물관장은

"최근 생화산업의 발달로 지화장인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불교 유무형 문화재들의 제대로된 전승을 위해서라도 지화장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강현모 한남대 교수와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장 정명 스님은 지화를 현대적 감각의 예술작품이나 문화상품으로 재창조하는 방안과 전통방식의 지화제작법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덕현 기자

전법학술상 대상 원빈 스님 '소셜네트워크 전법'

불광연구원 11월 27일 제2회 전법학 수상자 발표

우수상에 해외 부문 신설, 렉쉬 쏘모 스님 선정

국내 우수상은 백도수 박사 '붓다의 비유전법'

불광연구원이 전법 교화 활성화를 위해 수상하는 전법학술상 대상에 원빈 스님의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법교화 모형 연구'가 선정됐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11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회 전법학술상 바라밀상(대상)에 중앙승가대 박사과정의 원빈 스님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상인 전법상에는 전 동국대 강사 백도수 박사와 미국 샌디에고주립대학 교수 까라마 렉쉬 쏘모 교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전법학술상에는 국내 논문 9편, 국외 논문 4편 등 총 13편의 논문이 응모됐다. 제1회 전법학술상 응모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치열한 경쟁과 심사를 거쳐 대상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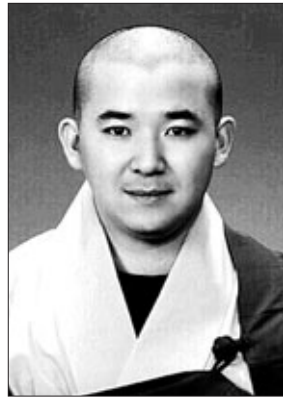
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법교화 모형 연구'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법교화라는 시대 흐름에 맞는 주제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저자 스스로가 페이스북과 팟캐스트 등 다양한 전법활동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법상을 수상한 백도수 박사의 '붓다의 비유전법에 대한 고찰-초기불전의 자유전법을 중심으로'는 붓다의 설법이 담고 있는 비유의 구조와 방법, 붓다가 사용한 비유설법의 내용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한 논문이다. 백 박사는 이 같은 연구를 토대로 현재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설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전법과정에서 설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병고 고익진 선생은?



1934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익진 선생은 1954년 전남대 의대 재학 중 심내막염이 발병한다. 5년간 입원생활 후 광복사 요양 중 불교에 입문해 1965년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과에 입학한다. 1969년 동국대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1974년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를 수료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한국불교전서> 편찬실장으로 전서 편찬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1981년 일승보살회를 창립했으며 1983년 불교학과 조교수, 1986년 부교수로 부임한다. 1988년 지방이 약화돼 이해 10월 입적했다.



원빈 스님



까라마 렉쉬 쏘모 스님



백도수 박사

까라마 렉쉬 쏘모 스님의 '깨달음의 교차로-여성과 불교 다국적주의'는 불교와 성평등, 불교적 젠더문제를 심도 깊게 다뤘다.

사카디타 세계여성불교협회장을 역임한 쏘모 스님은 논문에서 불교사에는 불교 발전에 공헌한 수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기록이 공식문헌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쏘모 스님은 또 여성들의 중추적 위치를 인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불평등한 교육기회, 승가 내 권위 문

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쏘모 스님은 논문에서 양성평등 사회로 가고 있는 현대에 성차별이 존재하는 종교조직들은 결국 도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법학술상 시상식 및 수상논문 발표회는 12월 8일 서울 불광사 보광당에서 열리는 일요법회에서 진행된다. 바라밀상은 500만원, 전법상은 각각 300만원이 수여된다.

노덕현 기자

"신라 대표 삼존불상 돈황에서 유래됐다"

문명대 교수, 불교미술교류 학술대회서 강조

"신라 삼화령 미륵불의상은 중국 서북 일대의 북주 미륵불의상에서 유래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는 11월 1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돈황석굴의 불교미술과 한국 고대 불교미술의 교류' 학술대회에서 삼국시대 석불상 중 최고로 꼽히는 신라 삼화령 미륵불상이 수나라 돈황석굴 불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삼국시대 석불상 가운데 최고의 불상으로 주목받는 삼화령 미륵세존의 아기형의 형태와 천의자락의 특징을 410굴 미륵불의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

며 "북주·수대의 보살상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문 교수가 유래됐음을 밝힌 돈황 410굴 미륵불의상은 수나라 돈황석굴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현재 경주박물관 불상실 남북에 있는 신라 삼화령 미륵불상의 경우 6세기 말과 7세기 전반기 경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원각의 삼존불의상으로는 신라 유일의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끝으로 문명대 교수는 "돈황석굴의 불교미술과 우리나라 불교미술과의 관계를 좀 더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감사원, 11월 27일 문화재 실태 감사 착수

감사원이 문화재에 대한 특정감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11월 27일 착수했다. 예비조사는 통상적으로 1주일간 진행되며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감사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예비조사 대상에는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국보 제1호 승려문, 균열이 발견된 국보 제24호 경주 석굴암, 일부 경관이 훼손

손된 것으로 밝혀진 국보 제32호 해인사 팔만대장경 등 문화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승려문 부실복원 등의 논란이 일자 11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문화재 부실 관리에 대한 엄중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천지운명 건강 120세

불자 여러분들에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무령 역을 | 신국대판 | 720페이지 | 크기 120,000원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당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20여년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요법 효소당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발원하며, 책을 구입하시는 선착순 100명께는 기존 출간된 천지운명 책 한권을 더 드립니다.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24-119번지

대선불교조계종 천운사 무령합장

전화 032)655-1356 / 팩스 032)664-1356 / H P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 신한 110-113-445631(예금주 : 장지업)

사찰법당앰프설치전문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전국일괄 설치비 : 1,80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고성능 구조넉마이크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경명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우수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외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